

哲學과 知性

-哲學精神의 再建을 爲하야- (五)

金午星

그러면 合理性과 非合理性의 統一(對立的)이란 어떠한 될 것인가? 一은 兩者가 서로 市民權을 維持하면서 統一될 수는 없고, 統一이 同時에 兩者의 變容 아니면 안될 것이다. 合理主義와 非合理主義가 한 가지로 自를 變容하지 안코는 兩者의 統一은 바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對立者의 統一은 兩者가 同時에 自己를 變容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一者에 依한 他者의 統一으로서, 一者가 他者를 自己에게 統一시킴으로서 一者, 他者를 變容시키는 同時에 또한 自己 自身을 變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知性的의 再建은 知性에 依한 非知性的인 것의 統一이며, 知성은 非知性인 것을 自己에게 統一함으로서, 非知性的인 것을 變容시키는 同時에 또한 知性 自身을 變容하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具體적으로 적어보기로 하자.

우리는 合理主義가 熱情, 直觀, 現實 등을 捨象하고 純粹觀念的 造作에만 기우러짐으로서 論理의 過剩을 나하 노하으며, 그리하여 知性的의 混亂을 보혀 주었음을 알아왔다. 그러므로 知性的의 再建은 먼저 知性이 疎朴했던 熱情, 直觀, 現實 등과 다시 統一하지 안코는 不可能한 것이다.

첫째, 知성은 情熱, 즉 파토스와 統一하지 안하면 안된다. 知성이 파토스와 統一하는 것은 知성이 다시 自己의 根源에 돌아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近代 合理主義가 파토스를 버린 것은 그것이 어떤 合理主義者들의 姑意에서 가 아니고, 近代 市民的 知性的의 限界狀況에서 必然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看過해서는 안된다. 파토스와 로고스(知性)는 그것이 對立者인 까닭에 統一과 分裂을 되푸리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 되푸리는 되푸리를 爲한 되푸리가 아니고 歷史的 必然에 依한 되푸리인 것이니, 兩者는 항상 統一과 分裂을 되푸리하면서 뿐 모든 새로운 創造를 나타내여 온 것이다. 그러면 파토스와 로고스의 統一과 分裂은 어찌

서 잊어지는가?

파토스는 轉換期の 感情狀態라고 나는 다른 곳에서 말했다. 民族이 또는 世界가 한번 自己를 轉換하려 할 때 사람들은 한 개의 파토스(情熱)에 사로잡힌다. 파토스의 激浪이 全時代를 支配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時代가 形骸만 남은 로고스에 依하여 解釋되며 □□되어 왔음에 反하여, 그들은 自己네의 時代를 파토스의 힘으로서 變容하며 創造하려 한다. 그러나 파토스는 自己를 實現하려면 로고스와 結着하지 안하면 안되게 된다. 파토스는 自己實現의 方法을 必要로 하는 까닭이다.

파토스로서 나타난 時代의 意識은 이제 로고스에까지 自己를 높이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 파토스는 로고스와 統一하므로서 그것이 單히 時代意識으로서가 아니고 同時에 한 개의 歷史意識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파토스와 統一하는 로고스(知性)는 벌써 前時代의 知性 그대가 아니다. 이때의 知性은 한 개의 파토스의 論理이며 時代的, 歷史的 論理이다. 이러한 知性の 立場에서 보면 벌써 前時代의 知性은 그것이 파토스와 歷史意識을 喪失한 까닭인 것으로 밖에 보히지 안는다. 그것은 벌써 自己時代도 또는 새 時代로 說明할 수 없음으로써이다.

近代 市民社會에의 轉換期이던 루네산스[르네상스]는 먼저 한 개의 파토스(時代的 情熱)로서 나타났다. 古典에의 心醉, 未來에의 憧憬, 教會文化에의 反抗, 이러한 激情(파토스)이 루네산스를 나어 노흔 것이다. 그러나 이 루네산스·파토스가 自己를 實現키 爲하여야는 自身의 論理를 갖지 안하면 안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市民哲學이 생겨났다. 市民哲學은 當時의 單히 時代意識으로의 파토스를 歷史的 意識에까지 昂揚시켰을 뿐 아니라 知性 自身도 變容시켰다. 中世紀的 스킨라[스콜라]哲學이 唯名論的 도그마에 떨어짐에 抗하여 베-콘[베이컨]은 어디까지나 時代의 哲學이 되기를 主張한 것이다.

이리하여 近代 市民文化의 創初其에 잇어는 파토스와 로고스는 統一되어 잇었다. 그러나 近代文化는 차츰 파토스를 喪失하게 되었다. 그것은 市民社會의 成立과 함께 時代的 情熱이 사라진 까닭이다. 이리하여 파토스 없는 純粹知性的의 哲學, 즉 合理主義가 成立된 것이다.

파토스의 代身, 로고스가 君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市民社會의 矛盾과 함께 또다시 새로운 파토스가 生長되었다. 우리는 다시 루네산스의 轉換期를 經驗하게 되었다. 파토스가 다시 時代의 前面에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파토스와 로고스는 다시 對立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새로운 파토스의 出現은 낡은 로고스의 混亂과 危機를 意味한다. 今日 知性的의 混亂, 危機는 여기서 由來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토스는 로고스 없이는 自己를 實現하지 못한다.

또한 今日의 知性の 危機는 파토스와 結合하지 안코는 救出할 수 없다.